

목포 장애인 돌본 외국인 수녀의 헌신의 흔적들

‘목포에서 44년 제라딘 라이안 수녀 아카이빙’ 전
4월14일까지 전남여성문화박물관...유튜브 공개
조은정 목포대 교수, 강영자·윤선미 작가 등 참여

1979년 목포에 도착한 파란 눈의 수녀는 40년 이 넘는 시간 동안 언제나 장애인들과 함께였다.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지적장애이들에게 애정을 쏟기 시작한 그는 자립과 재활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시작으로 그룹홈을 거쳐 지금은 명도복지관을 운영중이다. 성 골롬반 외방선교수녀회 소속 제라딘 라이안 수녀 이야기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전남여성문화박물관은 지역 여성들의 삶을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오는 4월 14일까지 전남여성문화박물관(전남 여성가족재단 2층)에서 열리는 ‘목포에서 44년 제라딘 라이안 수녀 아카이빙’전은 한 이방인 여성의 삶을 통해 70년전 지구를 반 바퀴 돌아 이땅을 찾았던 외국인 수녀들의 활동과 헌신에 대한 기억을 찾아보는 기획이다.

1955년 천주교 광주교구 해롤드 대주교 초청으로 성 골롬반 외방선교수녀회 외국인 수녀들은 목포에 진료소를 세웠다. 이들이 세운 병원, 학교, 복지 기관은 목포 지역사회 의료와 복지의 주춧돌

이 되었다. 목포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아쉽게도 이들 개인의 이야기와 활동에 대한 기억과 흔적은 갈수록 희미해지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라딘 라이안 수녀의 삶과 활동을 아카이빙하는 작업은 과거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기획이다.

이번 아카이빙전은 조은정 목포대 미술학과 교수와 목포대 대학원을 수료한 7명의 청년작가들이 함께 문화예술로 풀어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작가들은 제라딘 라이안 수녀와 주변 사람들의 개인적인 기억과 공식적인 자료, 일상의 흔적을 찾아보고 이들을 토대로 다양한 ‘스토리’들을 만들어 전시장에서 선보인다.

강영자 작가는 수녀님과 지인들의 모습이 담긴 회화 작품 ‘농장’, 윤선미 작가는 ‘추억’이라는 작품을 선보인다. 또 정민정 작가는 온화한 수녀의 모습을 담은 초상화 작품을, 정주은 작가는 소박한 느낌의 ‘감따기’라는 작품을 전시한다.

그밖에 이종성·박건우 작가는 라이안 수녀의 삶



정민정 작 제라딘 라이안 수녀의 초상화

을 연대표로 정리했으며 정주은 작가는 ‘아일랜드에서 목포까지’, ‘목포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등을 주제로 라이안 수녀의 여정을 정리했다.

이번 전시는 여성가족재단 유튜브·네이버 블로그 공식채널에서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 “서남아시아 유물자료 기증하세요”

종교·명절·음악 등 전통 자료

서남아시아 일상생활과 종교, 명절, 음악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유물자료를 기증받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 아시아박물관은 아시아의 유물과 자료를 연중 기증받는다. 구체적으로 위에 언급한 자료 외에도 서남아시아 도시광장과 전통시장 등 도시문화와 관련된 유물, 민주와 인권 그리고 평화와 관련된 자료도 포함된다.

이번 수증 대상은 아시아문화와 관련 문화재적 가치와 연구, 전시의 활용도가 높은 실물자료이다.

기증 자료와 유물은 ACC 아시아문화박물관에 보존돼 기획전시와 교육, 연구, 문화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증 희망자는 신청서와 유물 사진 등 서류를 ACC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아시아문화박물관은 ACC 내 등록된 전문박물관으로 아시아문화와 관련된 유·무형의 자료를 수집해왔다. 인도네시아 생활용품과 예술품으로 구성된 누산타라 수집품 외에도 중앙아시아 키르기즈 민족의 전통 카펫인 알라키이즈와 쉬르



기증 유물 '가루다상'

탁 등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기증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문의 062-601-453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지택 화백 기증작품전 ‘심상의 세계’를 만나다

4월16일까지 드영미술관
원형·직선 표현 어우러져
역동적 느낌·선명한 색 눈길

‘추상과 구상의 만남.’

서양화가 박지택 화백은 50여년 가까운 세월 동안 광주 예술의 거리 작업실에서 붓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예전같지 않지만, 그림은 여전히 그의 벗이자, 즐거움이다.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이 오는 4월 16일까지 ‘박지택 화백 기증작품전: 심상의 세계’전을 개최한다.

기획전에서는 박 화백이 드영미술관에 기증한 작품 중 선별한 12점과 신작 17점을 함께 전시한다.

광주사립미술관장, (재)광주비엔날레 이사, (사)한국 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장 등을 지낸 그는 이번 전시에서 구상 작품과 더불어 비구상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전시장에는 1994년 작품부터 2023년 작업물까지 함께 나와 작품의 변화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구상에 비하면 비구상은 힘든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흥미있는 작업이기도 해요. 미술관장을 그만 둔 후 비구상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변화와 실험을 해볼 수 있어 재미있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업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지요. 앞으로도 다양한 작업들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전시장에 나온 ‘환희’, ‘진동하는 공간’ 등의 작



‘환희’

품은 원형과 네모 등 다양한 도형이 어우러져 색다른 조형성을 만들어내며 울동감과 더불어 리듬감을 전한다. 또 다채로운 색채의 활용으로 변화무쌍한 화면을 선사한다.

또 따뜻한 분홍빛 복숭아꽃과 푸른 언덕을 배경으로 화사한 봄날의 환희를 느낄 수 있는 작품 ‘복사꽃’, 정박한 어선과 하늘, 물결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바닷가 풍경을 만나는 ‘해안가’ 등의 구상 작

품도 눈길을 끈다.

드영미술관 관계자는 “박화백의 이번 전시작은 구상회화의 큰 맥에 화업의 뿌리를 키워온 과거에서 더 나아가 역동적인 속도감과 변화의 곡선이 느껴지는 활력 넘치는 비구상 작품을 시도, 시각적 미감을 넘어 오감을 충족시키는 창작행위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문의 062-223-65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서보 화백 “폐암3기...캔버스에 한 줄이라도 더 굿고싶어”

‘단색화 거장’ 박서보 화백이 최근 폐암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박 화백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폐암 3기 판정을 받았다”면서 “평생 담배를 물고 살았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서야 끊었다”고 적었다.

올해 92살인 그는 “당장 죽어도 장수했다는 소리를 들을 텐데 선물처럼 주어진 시간이라 생각한다”며 “작업에 전념하며 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것이고 캔버스에 한 줄이라도 더 굿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화백은 또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연락하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안부 전화 등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 화백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단색화 대가로, 수행하듯 반복해서 선을 긋는 ‘묘법’ 연작이 대표작이다. 그의 작품은 지난해 국내 경매시장에서 작가별 낙찰 총액 3위에 올랐고 최근 루이비통이 한국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박 화백이 디자인에 참여한 가방을 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



임윤찬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 영상 1천만뷰 돌파

뮤지컬 ‘광주’ 5월 공연 앞두고 지역 연기자들 뜨거운 관심

89명 지원, 27일 최종오디션...5월16~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뮤지컬 ‘광주’는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 세계화 사업 일환으로 기획됐다. 지난 2020년 서울 대학로 흥의 대아트센터에서 초연한 이후 광주를 비롯해 고양, 부산, 전주 등 공연에 1만3000여 명이 관람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봐야 할 국민뮤지컬’이라는 호평을 받았으며 제5회 한국뮤지컬어워즈의 대상, 앙상블상 등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돼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

오는 5월 16~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 주간에 공연 예정인 뮤지컬 ‘광주’에 지역 연기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광주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 참여자 공모에 모두 89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문화재단은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제작사인 라이브(주), 극공작소 마방진과 광주·전남권 대

상 배우를 대상으로 오디션 공모를 진행했다. 야학 학생인 장삼년 역과 남·여 광주시민 앙상블 등에 출연할 배우 공모에 모두 총 89명이 지원한 것.

제작사 측은 1차 서류전형을 거친 45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연습실에서 최종오디션을 진행한다. 선발된 배우들은 3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뮤지컬 ‘광주’는 지금까지 세 번째 시즌을 선보였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뮤지컬 본고장 뉴욕 브로드웨이 ‘787 seventh’에서 쇼케이스를 진행해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로부터는 ‘전 세계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호평을 받았으며 2021년에는 일본TV 방송을 통해 일본 전역에 방송되며 ‘아시아의 레미제라블’로 찬사를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반 클라이번 콩쿠르 연주 실황

피아니스트 임윤찬(18·한국예술종합학교)이 지난해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콩쿠르 결선에서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영상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1000만회를 넘겼다.

클라이번 재단이 작년 6월 20일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임윤찬의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제3번 영상은 23일(한국시간) 오전 5시 30분 기준으로 조회수 1000만 400회를 기록했다.

클라이번 재단은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임윤찬의 역사적이고 거장다운 2022 클라이번 콩쿠르 연주영상이 방금 유튜브에서 1000만뷰를 돌파했다. 다시 한번 연주를 감상할 완벽한 날”이라며 해당 영상의 링크를 첨부했다.

임윤찬은 지난해 6월 17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 위스 베이스퍼포먼스홀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D단조를 연주했다. 이 곡은 ‘악마

의 협주곡’ 또는 ‘피아니스트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극한의 고난도 테크닉을 요구하는 작품으로, 임윤찬은 클라이번 결선에서 이 곡을 신들린 듯한 완벽한 연주로 선보여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영상에는 임윤찬의 강렬한 연주와 관객들이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보내는 모습, 협연을 지휘한 미국의 명 여성지휘자 마린 엘숨이 감정에 겨운 듯 눈물을 흘리는 모습 등이 생생히 담겼다.

작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한 임윤찬의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제3번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기존의 세계적 연주자들의 같은 곡 연주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많다.

클라이번 재단은 임윤찬의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 영상이 공연의 히트를 기록하자 작년 9월 엔 화질과 음질을 개선한 리마스터링 버전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임윤찬은 이 화제의 라흐마니노프 3번을 올해 미국 투어에서 다시 선보인다. /연합뉴스